

運氣理論의 韓醫學的 適用에 關한 考察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朴勇浩 · 趙學俊*

Adaptation UNGI Theory To Oriental Medicin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oung University

Yong-Ho Park, Hak-Jun Jo

UNGI(運氣) theo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ory in Oriental medicine. But it's so difficult to adapt to real medic. Long time ago many Oriental Physicians discussed this with other physicians, UNGI to Orietal Medicine, and so still now. Remarkably, it is important as a basic theory itself, UNGI exist as a special medic. We can see that in the book of '五運六氣韓醫學寶鑑', '運氣演繹方藥篇' and other such kind of books. The special thing is we can predict each man's disease through the date of his birth. And more, we can make out prescription for each person's health. In addition, by knowing his date of birth, we can calculate his date of pregnancy, and with the same way, we can also predict and prescript that he can be protected from his fateful disease. But, the way like this can make Oriental medic an astrology and a superstition. So I studied on this and concluded as follows,

1. UNGI theory is important in the Oriental Medicine not only in basic but on diagnosis and attendance.
2. Mechanical abuse in the past, make UNGI theory unbelievable. But Liu Ha-gan(劉河間) studied so deeply, and knew the right way to applicate UNGI theory on Oriental medic.
3. It is not logical the pregnant day counted thru birthday, so we have to percept this an abstract idea. And it founded detail way to count the pregnant day.

'UNGI' as a medical system, by knowing his birthday we can predict and prevent his fateful diseases. Of course, I cannot find such substances in Neijing, and classic books on Oriental medicine. So queer at a glance, but clinically it has some valuable meanings. However, There's little to prove its foundation. It is similar to astrology, we cannot define its base. The problems we have to trace and find out.

Key Words : UNGI-constitution(運氣體質), Pregnant day(入胎日), Counting pregnant day from birthday(入胎日推算法), Classification of UNGI-constitution(運氣體質分類)

I. 緒論

五運六氣學은 古代 氣象學에서 유래하여 自然現象을 把握하는 하나의 基準으로 역할을 했으

며, 王冰이 『內經』에 運氣七篇을 증편하여 韓醫學의 基礎理論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로부터 自然環境의 變化에 따라 用藥을 달리 해야 함을 발 전시켜 運氣傷寒, 運氣體質 등의 의학의 새로운 분야로 완성되었다.

歷代 醫家들 사이에서 運氣學說 自體를 否定하거나, 運氣學說은 認定하되 機械的인 運用을 反對하는

* 교신저자: 趙學俊,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43) 649-1347, johohun@kornet.net

醫家, 運氣學說을 醫學에 반드시 適用할 것을 主張하는 醫家들로 大別할 수 있다²⁾.

한편, 우리나라에는 生年月日을 基準으로 推算하여 入胎日을 推算하고 그에 따라 이 사람이 갖게 되는 體質과 疾患, 그에 對해 基本的으로 應用되는 處方까지 제시한 運氣醫學이 존재하고 있으니 『五運六氣漢醫學寶鑑』³⁾이 現在 이용되고 있는 運氣醫學의 原型이라 할 수 있겠다.

生年月日을 基準으로 運用되는 運氣醫學은 體質分類라는 側面과, 處方運用의 側面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運氣醫學이 四柱와 類似한 점과 機械的인 運用을 하게 될 수 있어, 자칫하면 未信으로 認識하거나 盲目的으로 使用하는 弊端이 발생한다.

이에 運氣醫學의 起源과 發展過程, 또한 그 贊反論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生年月日을 基準으로 運用되는 運氣醫學의 運用方法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本論

1. 五運六氣學의 起源과 醫學的 貢獻

(1) 五運六氣學의 起源

古代 農耕社會에서 農業이 삶의 주요한 수단이었기에 氣候의 豫測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이를 핵심적인 통치수단으로 받아들여 窮究함으로 인해 생겨진 學問이라고 볼 수 있다⁴⁾.

運氣理論의 登場은 精確한 淵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中國 古代 先秦時期인 夏, 殷, 周, 春秋戰國時代에 이미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天文學 水準이었으며, 당시에 이미 天象의 관찰을 매

우 중요시 하였다. 28宿와 星辰의 運動法則, 天體日月에 대한 觀察을 進行하였고, 太陽視運動에도 이미 관심을 두었다.

曆法의 경우 甲骨文에 이미 은나라에서 殷曆을 사용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戰國時代에 24節氣가 이미 완전히 형성되었고, 24절기의 형성으로 太陽曆體系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2천여 년 동안 陰陽合曆이 並存해오고 있다.

28宿에 대한 연구는 선진시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춘추시기에는 이것으로 分野說을 세워 하늘의 28宿와 12辰을 땅위의 국가와 지역에 배합하여 하늘과 땅의 相互關係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고대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상이한 관찰방법이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運氣學說은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⁵⁾.

(2) 運氣學說의 醫學的 貢獻

運氣學說의 核心理論은 氣化理論이다. 運氣氣化는 宇宙氣化和 人體氣化的 거시적 整體關係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다⁶⁾. 이는 氣運의 變動으로 인해 일어나는 變化像을 관찰함으로 인해 일기를 예측한다는 것인데 天人相應에 의해 인체의 氣化運動을 살펴봄 그 축이 되는 藏府의 氣化關係를 살펴 病을 예측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醫學에 대한 運氣學說의 貢獻을 살펴보면 『中醫運氣學』에서는 몇 가지의 방면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內經』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1) 氣化學說에 對한 運氣學說의 貢獻

① 生命은 氣化에서 탄생한다.

『中醫運氣學』에서는 모든 생명활동을 氣의 變化를 통한 과정으로 파악을 하는데 다음의 『內經』 문장을 근거로 들었다.

『素問·天元紀大論』中 “夫五運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

2) 김창규 외 2人. 運氣學說의 贊反論에 대한 歷史的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8. 11(1). p. 43-59.

3) 天安漢醫師會. 五運六氣漢醫學寶鑑. 서울. 右文堂印刷社. 1967.

4) 尹暢烈. 運氣學說의 起源에 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9. 12(1). p. 56.

5) 揚力. 中醫運氣學. 中國. 法仁文化社. 2000. p. 30.

6) 揚力. 中醫運氣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29.

也, 可不通乎?”

“故物生謂之化, 物極謂之變, 陰陽不測謂之神, 神用無方謂之聖.”

② 物化에 대한 氣化의 影響

氣化로 인해 事物에 變化가 일어나는 것을 物化라 칭하며

『素問·陰陽應象大論』中

“風勝則動, 熱勝則腫, 燥勝則乾, 寒勝則浮, 濕勝則濡寫.”

上記의 문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③ 病候에 대한 氣化의 影響

『素問·六元正紀大論』中

“厥陰所至爲裏急, 少陰所至爲瘍疹身熱, 太陰所至爲積飲否隔, 少陽所至爲嘔嘔爲瘡瘍, 陽明所至爲浮虛, 太陽所至爲屈伸不利. 病之常也.”

『素問·至真要大論』中

“諸風掉眩 皆屬於肝, 諸寒收引 皆屬於腎, 諸氣臌鬱 皆屬於肺, 諸濕腫滿 皆屬於脾, 諸熱瘡癩 皆屬於火, 諸痛痺瘡 皆屬於心, 諸厥固泄 皆屬於下, 諸痿喘嘔, 皆屬於上”

“夫百病之生也, 皆生於風寒暑濕燥火, 以之化之變也”

위의 내용 등을 예로 들어 病의 發生부터 變化된 各各의 氣運에 따른 病理的 症狀를 설명하며 그 原因은 모두 氣의 變化상인 六氣임을 말한다.

2) 臟象學說에 대한 運氣學說의 貢獻

① ‘天象’의 觀察을 重視함.

『素問·五運行大論』中 “天地陰陽者, 不以數推, 以象之謂也”

② 象으로 臟腑를 觀察함.

『素問·五藏生成論』中 “五藏之象, 可以類推”

③ 臟象의 動態觀

臟象學說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生命體에서만 存在한다. 臟象은 五臟사이의 關係, 體表와의 相互

連繫, 外界에 對한 反應 등을 包括하고 있다. 따라서 外象은 살아있는 것으로서 칼로 해부하여 찾을 수 없고 죽은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3) 病機學說에 대한 運氣學說의 貢獻

① 六氣가 偏勝하면 相應하는 臟에 害를 끼친다.

『素問·至真要大論』中

“帝曰 歲主藏害何謂? 岐伯曰 以所不勝命之, 則其要也.”

主歲하는 氣가 偏勝하면 상응하는 臟에 害를 끼친다. 自然界의 五運六氣는 모두 人體에 影響을 미친다는 뜻이다. 氣候變化가 人體의 適應 限界를 超過하면 疾病의 發生을 招來한다. 運氣의 太過와 不及 등은 人體 藏器에 損傷을 가져다준다.

② 損傷된 部位를 통해 病名을 定한다.

『素問·至真要大論』中

“厥陰司天 其化以風, 少陰司天 其化以熱, 太陰司天 其化以濕, 少陽司天 其化以火, 陽明司天 其化以燥, 太陽司天 其化以寒, 以所臨藏位, 命其病者也.”

③ 病機를 자세히 分析하여 六氣의 變化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素問·至真要大論』中

“夫百病之生也, 皆生於風寒暑濕燥火, 以之化之變也.”

모든 病은 六氣로부터 生한다하여 六氣病機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였다.

④ 根本을 찾아 治療하는 方法

『素問·至真要大論』中

“謹守病機, 各司其屬, 有者求之, 無者求之, 盛者責之, 虛者責之, 必先五勝, 疎其血氣, 令其調達, 而致和平”

4) 治療學說에 대한 運氣學說의 貢獻

① 治療의 總원칙을 제시하였다.

『素問·五常政大論』中 “化不可代, 時不可違.”

『素問·六元正紀大論』中 “欲通天之紀，從地之理，和其運，調其化”

② 具體的 治療原則

① 약물의 성능을 빌어 偏盛偏衰를 바로 잡아 이를 통해 “動態的 平衡을 목적으로 한다 [以平爲期]”

『素問·六元正紀大論』中 “時必順之，犯者治以勝也。” “調之正味”

㉠ 藏府의 氣血을 調節하는 方法

『素問·至眞要大論』中

“必折其鬱氣，先資其化源，抑其運氣，扶其不勝，無使暴過而生其疾”

③ 標本中氣의 治療法

『素問·至眞要大論』中

“是故百病之起，有生於本者，有生於標者，有生於中氣者，有取本而得者，有取標而得者，有取中氣而得者，有取標本而得者，有逆取而得者，有從取而得者，逆，正順也，若順，逆也。”

“故曰 知標與本，用之不殆，明知逆順，正行無間，此之謂也。”

④ 精氣의 保護와 用藥에서 精氣를 損傷시키지 않는 原則

『素問·五常政大論』中

“大毒治病 十去其六，常毒治病 十去其七，小毒治病 十去其八，無毒治病，十去其九。” 라고 하여 精氣를 손상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五運六氣는 生理, 藏象, 病理 및 治療의 측면에 있어서 基礎的인 觀點 및 臨床의 基本的인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다.

2. 運氣의 醫學的 適用에 대한 贊反論과 劉河間의 運氣運用

五運六氣가 완전한 學說로서 醫學書籍중에 나타난 것은 唐代 王冰이 補入한 『素問』의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및 「至眞要大論」의 所謂 ‘運氣七篇’ 으로부터 비롯한다. 이때부터 韓醫學에서의 五運六氣는 自然환경의 變化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人體의 질병에 대한 예측과 예방, 치료에 그 초점이 맞추어 진다⁷⁾.

(1) 運氣學說의 醫學的 適用에 對한 贊反論

『內經』에 運氣七篇이 王冰에 의해 추가된 以後 五運六氣는 韓醫學의 基礎理論으로 자리잡게 된다. 宋代의 劉溫舒는 『素問入式運氣論奧』를 저술 하였는데 이는 後代에 運氣學을 研究하는 人們의 基礎書籍이며, 運氣學說에 대해 계통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서적이라 하겠다. 그 이후 많은 醫家들은 運氣學說을 중요시하여 많은 研究와 臨床에의 應用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이 運氣理論의 運用에 있어 否定的인 見解를 갖고 있는 醫家와 運氣學의 當爲性을 認定하고 運用에 贊成하는 醫家들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運氣學說의 贊反論爭에 對한 歷史的 考察』⁸⁾에 詳述되어 있다.

馬蒔, 李梴, 程德齊, 熊宗立, 沈括, 汪機, 虞搏, 張介賓과 같이 運氣學說을 肯定한 경우와, 黃承昊, 馮兆張, 徐大椿, 王履와 같이 運氣에 대해 中途의 見解를 가진 경우, 繆希雍, 張飛疇, 陸彭年, 陳無咎 등과 같이 運氣學說을 부정하는 醫家들로 분류된다.

運氣學說에 肯定을 하는 人們들은 다시 五運六氣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보배로운 이론으로 인식하여 運用을 하는 人們들과, 運氣理論을 根據로 機械的인 適用을 하려했던 醫家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反對를 했던 醫家들 역시 두 부류로 정리가 될 수 있다. 한 부류는 『運氣七篇』의 眞僞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王履나 虞搏 등이 된다. 이를 제기한 의가들은 運氣學說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王冰이 補入한 運氣七篇이 僞作이라고 주장한 것이

7) 尹暢烈. 運氣學說의 起源에 대한 研究. 大田.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9. 12(1). p. 56.

8) 김창규 外 2人. 運氣學說의 贊反論爭에 對한 歷史的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8. 11(1). p. 43-60.

다. 또 한 부류는 대개 運氣學의 運用이 機械的인 適用으로 치우치는 면에서 機械的으로 적용함으로써 四診을 무시하고 症狀과 相關없이 治療를 피하는 것에 대해 反對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沈括은 『夢溪筆談·卷七』에서 “運氣學說은 常法과 變法의 關係를 이해하여 機械的으로 適用하는 것을 벗어나야지만 제대로 運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원칙적으로 五運六氣는 틀린 점이 없으나 그 運用方式을 機械的으로 活用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汪機 또한 그의 著書 『運氣易覽·序』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언급하고 있다⁹⁾.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運氣學說의 機械的 運用이란 점인데, 程德齊의 『傷寒鈐法』과 熊宗立의 『素問運氣圖括定局立成』이 대표적이다. 運氣를 追崇하는 사람중에 특히 『傷寒鈐法』을 『內經』의 運氣學說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여겼으며, 심지어는 『黃帝內經』의 뒤에 덧붙여 板刻發行하여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薛己나 熊宗立이 대표적이다. 薛己는 자신의 著作인 『薛氏醫案』에 『傷寒鈐法』을 그대로 수록해 놓고 있으며 熊宗立은 『素問運氣圖括定局立成』을 편찬하여 『黃帝內經素問靈樞』의 뒤에 덧붙였다. 이러한 서적은 『傷寒鈐法』보다 더욱 정형화 된 것이고 圖式的이고 機械的인 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계적 응용은 “어떤 사람이 甲子年 生이면 그 사람은 子命이고 만일 그 사람이 甲子日에 病을 얻었다면 그 사람의 病은 太陽病이 되며 …… 결국 處方은 病과 상관없이 大陷胸湯이 된다¹⁰⁾.”고 까지 하였다.

이러한 機械的인 運用은 결국 運氣學說을 醫學的으로 適用하는데 있어서 肯定的인 見解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배척받았다. 張介賓은 『類經·運氣類 十注云』에서 “運氣의 內容을 문자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機械的으로 運用하는 것도 잘못이고, 運氣의 理致를 필요없는 것으로 보는 것 또한 잘못”이라며 運氣理論의 올바른 응용을

주장하고 있다.

中途의인 입장을 보였던 馮兆張은 『錦囊秘錄』에서 “運氣學說은 天地의 氣運이 運行하는 大法으로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처신하는 데 있어서 機械的인 適用이 不可하고 때에 따라 알맞은 變化를 念頭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劉河間의 運氣學說의 醫學的 應用

金元四大家인 劉河間은 좀 더 독특한 運氣醫學의 體系를 갖추게 되는데, 當時에는 運氣를 아예 공부하지 않거나 運氣를 고식적으로만 운용하여 處方과 方劑에 적용하고 있었다.

劉河間은 “運氣는 世上의 變化와 疾病의 本質을 把握하게 하는 重要한 原理로 의사라면 반드시 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運氣가 가지고 있는 참 뜻이 “고식적으로 干支를 운용하는데 있지 않다”고 하여 당시의 運氣를 운용하는 풍조를 비판하였다.

그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질병을 해결하는데 과거 傷寒論의 方法이 限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 한계는 仲景의 醫學理論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仲景이 傷寒論을 집필할 때와 당시 河間이 생활하던 때가 환경적인 차이가 큰 데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河間은 脈診과 處方의 運用 두 가지 측면에서 運氣를 이용하였는데, 診斷을 함에 있어서도 運氣를 살펴야 한다는 것은 運氣學이 處方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닌 診斷과 處方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며 단순히 機械的으로 運用해서는 안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¹¹⁾.

이는 運氣라는 것이 사람의 體質 형성부터 疾病의 發生과 治療에 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나, 그것은 相對的일 뿐 반드시 당시의 情狀을 살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또한 당시 시대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한편, 運氣理論의 運用에 診斷과 治療라는 두 가지의 방면이 모두 중요함을 강조하

9) 김창규 外 2人. 運氣學說의 贊反論爭에 對한 歷史的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8. 11(1). p. 43.

10) 王琦. 運氣學說의 研究與考察. 北京. 智識出版社. 1989. p. 262.

11) 李東鎬 外 1人. 劉河間의 運氣論과 그 運用에 關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2000. 13(1). p. 126- 129.

여 運氣理論을 의학에 접목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한층 상세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劉河間은 당시의 主歲之氣와 당시에 유행하던 질병이 火熱과 관련 있다고 보아 이를 실제로 응용하여 火熱을 위주로 하는 病機와 治療法을 세웠고, 이 이론을 내세우기 위해 『內經』의 病機論에 존재하지 않았던 '燥'病機를 추가했다.

또한 運氣의 흐름에 있어서 하나의 기운이 過亢하면 過亢된 기운을 剋制하는 기운이 나타나서 이로 인해 전체적인 恒常性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尙害承制論'을 구체적인 인체의 병리현상과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河間의 運氣運用은 『素問玄機原病式』과 '尙害承制論'을 제외하고라도 運氣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3. 우리나라의 運氣醫學

中國에서 역대 五運六氣學이 발달함에 따라 어떠한 運氣에는 어떠한 藥材를 집어넣는 등의 공식화가 이루어졌고, 『傷寒鈐法』에서처럼 태어난 해에 따라 病에 걸린 날과 함께 파악하여 병과는 상관없는 일련의 처방들이 소개되기까지 했다. 근래 老佛의 『運氣演繹方藥篇』에서는 60년의 運氣別로 하나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運氣學의 기원은 조선 영조 때 尹草窓의 『草窓訣』이라는 저서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상에 응용되고 있는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이나 『五運六氣學』, 『仙人秘傳五運六氣治病藥法』 등의 서적과는 다르다. 『運氣醫學』¹²⁾의 내용에 따르면 근래에 운용되고 있는 運氣處方의 처음은 『五運六氣醫學寶鑑』으로 1936년 4월에 출판되었으며 저자는 趙元熙다. 그는 스스로를 醫學士라고 했고, 醫生規則에 의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의 한 명으로 추측된다. 그 이후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은 1964년에 우문당인쇄사에서 출판된 책으로 저자는 오대영 원장이며 발간당시 천안시한의사회장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으며 서문에서 草窓先生이 발

명한 『運氣訣』이 世間에 간행되지 못하고, 간혹 베껴서 비밀리에 사용한 예가 적지 않았는데 천원군 광덕면에 은거한 심당선생이란 분이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여 환자에게 써보니 효과가 좋아서 널리 한의사들이 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책으로 출간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한다. 그 다음은 出版社나 著者를 알 수 없는 『東醫運氣寶鑑』이며 처방을 모두 전술한 책들과 같으나 저자의 경험방이 같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¹³⁾. 그 이후 근래에 나온 서적은 책의 이름은 相異하나 기본적인 처방을 거의 일치하며 내용과 편제까지 그대로 베낀 서적들을 볼 수 있다.

(1) 運氣體質分類方法과 그에 따른 種類

運氣學에서 病을 논할 때는 太過, 不及 등의 用語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體質을 獨立인 명칭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出生日을 근거로 하는 體質論도 獨立된 表現보다는 '主運-主氣-客運-客氣'로서 표현이 된다.

근래에 출간된 이러한 서적에는 『仙人秘傳五運六氣治病藥法』¹⁴⁾, 『五運六氣핸드북』¹⁵⁾, 『五運六氣處方學』¹⁶⁾, 『運氣演繹方藥篇』¹⁷⁾ 등의 서적이 있고, 出生日과 入胎日로 보는 運氣體質學의 공식화로 인해 '四柱大典'¹⁸⁾, '四柱百科'¹⁹⁾, '四柱博士'²⁰⁾, '韓醫博士'²¹⁾ 등 많은 프로그램들도 나와 있는 상태이다.

처방은 위의 서적과 프로그램에서 언급되는 처방은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의 처방과 동일하나, 『五運六氣핸드북』, 『運氣演繹方藥篇』 등의 처방은 여타 서적이거나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난다.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을 제외하고서는 저자가

12) 박영배 外 1人. 運氣醫學. 서울. 성보사. 2005.

13) 박영배 外 1人. 運氣醫學. 서울. 성보사. 2005. p. 19-23.

14) 金于齊 外 1人. 仙人秘傳五運六氣治病藥法. 서울. 明文堂. 1981.

15) 정규연. 오운육기핸드북. 서울. 에드텍. 2000.

16) 崔晟植. 五運六氣處方學. 미국. 동양서적. 1997.

17) 老佛. 運氣演繹方藥篇. 癸丑文化社. 1995.

18) 四柱大典. 부산. 四柱大典. 2000.

19) 四柱博士5.0. 서울. 선도정보통신주식회사. 1997.

20) 四柱百科4. 서울. 코리아컨텐츠네트워크. 2002.

21) 韓醫博士. 서울. 메디넷코리아. 2001.

韓醫師는 없었으며 대개는 四柱, 命理學 등을 공부한 사람들이거나 그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運氣體質의 分類가 生年月日을 기준으로 公式化 되어있기 때문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生年月日을 기준으로 體質을 分類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出生日을 기점으로 해서 五運六氣의 相互關係를 파악하고 臟腑關係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疾病을 예측하는 방법과, 둘째 臟腑關係로서만 파악하고 질병을 예측하는 臟腑體質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두 가지 體質論이 처음부터 함께 존재했는지는 자료가 워낙 부족해서 알 수가 없지만, 處方의 構成樣式이 다르고 『運氣演繹方藥篇』과 『五運六氣 韓드북』 등에서 臟腑體質에 대해 言及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함께 존재하지 않았으리라 필자는 추측한다. 『運氣體質에 關한 研究』중 “『五運六氣漢醫學寶鑑·五行運氣隨用藥』에서는 만약 世人이 단지 사주 중에서 生年月만을 알고 日時를 모를 경우는 年月運氣만 用藥을 따르고 病症은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25종류의 運氣體質에 따른 처방을 사용한다.”²²⁾고 하여 臟腑體質을 生年과 月만 알고 日과 時를 모르는 경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처방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臟腑體質을 判別하기 위해서는 精確한 날짜까지 알아야하며, 四柱 중에서 時의 의미는 五運六氣體質學에서 절기가 나뉘는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1) 生年月日을 基準으로 한 入胎·出生體質

일년 중 각각의 節氣에 대한 五運과 六氣의 배속은 다음과 같으며 그에 따른 客運과 客氣의 변화규율은 표 1, 표 2, 표 3, 표 4와 같다.

初運	大寒, 立春, 雨水, 驚蟄, 春分~
二運	清明前 三日, 穀雨, 立夏, 小滿, 芒種~
三運	芒種後 三日, 夏至, 小暑, 大暑, 立秋~
四運	立秋後 六日, 處暑, 白露, 秋分, 寒露, 霜降, 立冬~
五運	立冬後 九日, 小雪, 大雪, 冬至, 小寒~

표 1. 主運과 節氣의 配屬

初之氣	大寒, 立春, 雨水, 驚蟄~
二氣	春分, 清明, 穀雨, 立夏~
三氣	小滿, 芒種, 夏至, 小暑~
四氣	大暑, 立秋, 處暑, 白露~
五氣	秋分, 寒露, 霜降, 立冬~
終之氣	小雪, 大雪, 冬至, 小寒~

표 2. 主氣와 節氣의 配屬

運年	初運	二運	三運	四運	五運
甲己	土	金	水	木	火
乙庚	金	水	木	火	土
丙辛	水	木	火	土	金
丁壬	木	火	土	金	水
戊癸	火	土	金	水	木

표 3. 年度에 따른 客運의 變化規律

氣年	初氣	二氣	三氣	四氣	五氣	終氣
子午	水	木	火(少陰)	土	火(少陽)	金
卯酉	土	火(少陽)	金	水	木	火(少陰)
寅申	火(少陰)	土	火(少陽)	金	水	木
巳亥	金	水	木	火(少陰)	土	火(少陽)
辰戌	火(少陽)	金	水	木	火(少陰)	土
丑未	木	火(少陰)	土	火(少陽)	金	水

표 4. 年度에 따른 客氣의 變化規律

① 出生運氣體質

出生運氣는 後天運氣라고도 하며, 出生하는 當日의 年月日로 定해진다.

22) 金基郁. 運氣體質에 關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7. 10(1). p. 613.

例) 2005年 陽曆 1月 2日 生

甲申年 丙子月 丙戌日生

위의 날짜는 萬歲曆²³⁾에 의하면 2004年 12月 21日 冬至와 2004年 1月 5日 小寒의 사이에 있으므로 主運主氣는 五運六氣가 되며 客運客氣는 火木이 된다.

出生運氣가 갖는 意味는 태어나는 날의 環境에 의해 發生할 수 있는 疾病을 豫測할 수 있다는데 있다.

② 入胎(胞胎)運氣體質

入胎란 사람이 妊娠된 날부터 出生日 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入胎運氣는 先天의 疾患을 豫測할 수 있다는 데에 그 意味를 두며 基本的으로 出生日의 干合과 地合에 의해서 그 날을 推算해 갈 수 있다.

干合 : 甲-己, 乙-庚, 丙-辛, 丁-壬, 戊-癸

支合 : 子-丑, 寅-亥, 卯-戌, 午-未, 辰-酉,

巳-申

干合과 支合에 의해 入胎日을 推測할 수 있는데 例를 들어 甲寅日 生이면 入胎日은 己亥日이 된다.

또한 出生日에 따라 入胎日이 다르니 다음과 같다. 子午日 生은 入胎日이 276日, 卯酉日 生은 入胎日이 246日 또는 306日, 辰戌日 生은 296日, 丑未日 生은 266日, 寅申日 生은 256日, 巳亥日 生은 286日의 入胎日을 갖게 되고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出生日 地支	子午	卯酉	辰戌	丑未	甲申	己亥
入胎日	276	246 또는 306	296	266	256	286

표 5. 出生日의 地支에 따른 入胎日數

이에 따라 上中下器論(大中小器論)이란 말이 나타나는데, 入胎된 지 306日 또는 296日 만에 出生한 자는 上器(大器)라 하고, 286日 또는 276日 만에 出生한 자는 中器, 246日 또는 256日 만에 出生한

자는 下器(少器)라 하였다.

上器는 壽限이 180年으로 어떠한 重病이라도 用藥만 잘하면 能히 治癒된다고 하였고, 中氣는 壽限이 120歲에 이르나 四柱와 當年運에 따라 治療의 難易가 決定되고, 下器는 重病일 境遇에 蘇生하지 못하며 壽限은 60歲에 이른다고 하였다²⁴⁾.

例를 들어 陽曆 2005年 1月 2日 生은 296日 만에 出生한 上器에 該當되며 入胎日은 萬歲曆에 의하면 甲申年 丁卯月 辛卯日이 된다. 이 날은 3月 5日 驚蟄에서 20日 春分의 사이에 있으므로 主運 主氣는 初運 初氣가 되며 客運 客氣는 土火가 된다.

問題가 되는 것은 卯酉日 生의 入胎日에 關한 問題인데 『五運六氣學』에서는 246日의 出生者일 경우 달이 차이 않아 虛弱體로 보아 잔병치레가 많았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方法을 選擇했고, 相沖에 의해 判別하는 方法도 있다고 하였으며²⁵⁾, 프로그램 중에 ‘사주막사5.0’, ‘사주대전’ 등에서도 虛弱體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方法이 사용되고 있고, 『運氣醫學』, 『運氣體質에 關한 研究』, 『五運六氣헨드북』, 『五運六氣處方學』 등에서는 246日을 인정하지 않고 306日로 봐야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았으며, 프로그램 ‘四柱百科’도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入胎日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出生되는 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五運六氣處方을 運用하는데 있어서 卯酉日 生의 入胎方을 사용하는 경우 306일로 보고 處方을 했을 경우 좋지 않은 反應도 나타나는 터라 分明 分別은 해야 하며, 246일~306日間의 入胎日은 모두 〇〇6日이 해당이 되어 現實과 一致하지 않는 점을 생각한다면 필자는 觀念的인 問題로 把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五運六氣에 대해 私事만던 도중에, 相破와 相害의 關係로 246日과 306日을 判別하는 方法을 접하게 되었는데, 相破와 相害의 關係는 다음과 같다.

24) 老佛, 運氣演繹方藥篇, 癸丑文化社, 1995, p. 37.

25) 白南喆, 五運六氣學, 한림의학사, 1979, p. 63.

방법은 있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23) 김상연, 컴퓨터만세력, 대구, 갑을당, 2000, p. 228.

相破 : 子↔酉, 午↔卯, 申↔巳, 寅↔亥, 辰↔丑, 戌↔未

相害 : 子↔未, 丑↔午, 寅↔巳, 卯↔辰, 亥↔申, 戌↔酉

相破와 相害의 意味는 類似해 보이는데, 卯酉日 出生者가 生年月日의 地支에 서로 相破나 相害의 關係가 成立되면 入胎日은 246일로 봐야한다는 見解다.

예를 들어 陽曆 2005年 1月 1日 生의 境遇, 만세력²⁶⁾에 의하면 甲申年 丙子月 乙酉日 生인데, 이 사람의 入胎日 306일로 보았을 때 陽曆으로 2004年 3月 2日, 甲申年 丙寅月 庚辰日이 되어 初初土火에 該當이 되어 基本的인 處方은 橘附煎을 念頭에 둘 수 있겠지만 出生日의 地支 申, 子, 酉를 보면 子와 酉 사이의 相破관계가 成立이 되어 246日의 入胎로 보게 되며 入胎日은 陽曆 2004년 5월 1일, 甲申年 戊辰月 庚辰日이 되어 主運主氣客運客氣는 二二金土가 되고 基本處方은 加味治濕消風散을 念頭에 둘 수 있다. 물론 運氣의 차이에 따른 辨證觀도 달라지는 것은 當然하다.

그러나 이 相害나 相破의 關係에 있어서는 여러 四柱易學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相合, 相沖, 相刑의 關係가 四柱나 易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相對的으로 많기 때문에 파악이 된다. 『命理精說』²⁷⁾에서는 이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害라는 것은 敵對的 關係를 意味하는 것인데 이는 子午沖의 關係를 例를 들어 說明하자면 子와 午는 相沖관계이나 午와 未는 서로 合의 關係에 있어서 子와 未는 敵對的인 關係가 成立이 되는데 이를 害라고 한다. 反對의 경우 또한 午는 子와 相沖관계이나 子는 丑과 合하므로 丑과 午는 相害關係가 成立되는 것이다.”²⁸⁾

그러나 相破의 개념은 “相破關係의 成立은 相互間에 破壞, 分離, 離別, 切斷하는 作用을 말하는데 破란 沖, 刑, 害한 然後에 破가 加해지면 沖, 刑,

害의 最終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²⁹⁾라고만 언급하였다. 命理學에서는 이를 相破殺, 또는 六破殺이라고 이름하며 그 작용에 대해 “破는 三合을 깨는 역할을 한다. 三合에 침입하여 六合을 맺고 分別을 조성하고 단결을 무너뜨리는 作用을 하니 단거나 조합을 분열시키는 分派作用(분파작용)을 하기 쉽고 家庭의 단합도 깨뜨려 不和하기 쉽다.”³⁰⁾

四柱에서의 ‘相破’는 財産에 끼치는 악영향이나 가족간의 불화와, 客死, 사고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命理的으로 해석해 놓은 것일 뿐, 相破에 해당하는 간지의 배합원리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는 없었다.

生年月日로 疾病이나 健康을 推測할 때는 『中醫運氣學』³¹⁾이나 『運氣體質學輯要』³²⁾ 등 여러 運氣書籍들이 主張한 것처럼 生年月日과 季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生年月日의 天干과 地支를 基準으로 해서 五行의 多少와 相生, 相剋 等の 相互關係에서 어느 쪽이 太過하거나 不及함에 따라 이 사람의 基本的인 健康의 常態나 向後 發生하기 쉬운 疾患에 대해서 豫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 生年月日과 태어난 時의 季節이나 氣候 등을 함께 考慮해야 하는 것이 運氣醫學의 基本的인 條件이다. 比重은 相生이나 相剋, 相沖, 相合 等に 比하면 弱하지만 相破나 相害의 概念에 대해서도 認識을 하고 運用해야 한다.

③ 生年月日을 基準으로 한 臟腑體質

生年月日을 基準으로 하는 臟腑體質은 25個의 處方이 構成되어 있는데, 前述된 2005年 1月 2日 生이 出生運氣는 五六火木이고 入胎運氣는 初初土火가 된다. 이 때 火木은 이 사람의 出生臟腑이며 해당하는 처방은 雙金湯³³⁾이다. 土火는 入胎臟腑가 되며 念頭에 둘 수 있는 處方은 加味八味

29) 李俊雨, 命理精說. 서울. 明文堂. 1996. p. 208-212.

30) 인터넷 역학카페 역학동 자료실
http://cafe.daum.net/2040

31) 揚力, 中醫運氣學. 法仁文化社. 2000.

32) 姜鎭春, 運氣體質學輯要. 서울. 道林出版社. 2005.

33) 白芍藥 2.5錢, 蒼朮 2錢, 當歸, 川芎, 熟地黃, 黃芪 各 1錢, 桂皮, 甘草, 麻黃, 陳皮, 藿香 半夏 各 7分, 吳茱萸 5分, 入薑 3片, 棗 2枚 - 五運六氣學 p. 87.

26) 김상연, 컴퓨터만세력. 大邱. 갑술당. 2000. p. 228.

27) 李俊雨, 命理精說. 서울. 明文堂. 1996.

28) 李俊雨, 命理精說. 서울. 明文堂. 1996. p. 205-209.

湯³⁴⁾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대개는 藏腑를 判別함에 있어 入胎日을 基準으로 하나, 몇몇 運氣處方을 應用하는 사람들 중에는 出生藏腑가 옳다고 主張하는 이들도 있다. 이 역시 入胎日 推算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④ 四象의 名稱을 利用한 體質分類

四象의 名稱을 利用한 體質의 分類는 處方과는 결부되지 않으며, 出生年의 客氣를 根據로 해서 四象의 名稱을 붙여놓은 것이다.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일컬어지는 四象의 名稱은 東武 李濟馬의 四象醫學에서의 四象人의 分類와는 名稱만이 같다.

아래 表에서처럼 少陽人, 少陰人, 太陽人, 太陰人으로 分類는 하고 있으나, 各各의 名稱이 客氣와 어떤 關係가 있는 것인지 아직 明確한 資料가 없는 상태이다.

	初氣	二氣	三氣	四氣	五氣	六氣
子午	水	木	火(少陰)	土	火(少陽)	金
體質	太陽	少陰	少陰	太陰	少陽	少陽
卯酉	土	火(少陽)	金	水	木	火(少陰)
體質	太陰	少陽	陽明	太陰	厥陰	少陰
寅申	火(少陰)	土	火(少陽)	金	水	木
體質	少陰	太陰	少陽	少陽	太陽	少陰
巳亥	金	水	木	火(少陰)	土	火(少陽)
體質	少陽	太陽	少陰	少陰	太陰	少陽
辰戌	火(少陽)	金	水	木	火(少陰)	土
體質	少陽	陽明	太陽	厥陰	少陰	太陰
丑未	木	火(少陰)	土	火(少陽)	金	水
體質	少陰	少陰	太陰	少陽	少陽	太陽

표 6. 客氣에 따른 (四象)體質分類表

⑤ 三陰三陽의 名稱을 借用한 體質分類

前述한 四象의 名稱으로 體質을 分類하는 方法

34) 熟地黄 4錢, 山藥, 山茱萸 各 2錢, 白茯苓, 澤瀉, 牡丹皮 各 1.5錢, 木香, 甘草 各 1錢 - 五運六氣學 p. 91.

以外에 陰陽 變化象의 名稱으로 體質을 붙여놓은 分類法도 있는데, 이 分類法은 分類하는 方法 自體가 資料의 未備로 整理되어 있지 않으나, 前述한 四象의 名稱 分類法에서 그 模樣을 推測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래의 표 7에서 客氣 中에 木은 厥陰風木이므로 厥陰으로 체질이 배속되고, 金 역시 陽明燥金이므로 陽明으로 체질이 배속된다. 그 名稱의 由來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나눈 體質分類 역시 處方과 直接的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없는 것으로 判斷된다.

	初氣	二氣	三氣	四氣	五氣	六氣
子午	水	木	火(少陰)	土	火(少陽)	金
體質	太陽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卯酉	土	火(少陽)	金	水	木	火(少陰)
體質	太陰	少陽	陽明	太陰	厥陰	少陰
寅申	火(少陰)	土	火(少陽)	金	水	木
體質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	厥陰
巳亥	金	水	木	火(少陰)	土	火(少陽)
體質	陽明	太陽	厥陰	少陰	太陰	少陽
辰戌	火(少陽)	金	水	木	火(少陰)	土
體質	少陽	陽明	太陽	厥陰	少陰	太陰
丑未	木	火(少陰)	土	火(少陽)	金	水
體質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

표 7. 客氣의 變化에 따른 三陰三陽 體質分類

(2) 生年月日을 基準으로 한 運氣 體質分類의 問題點과 해법

以上으로 出生日에 따른 體質分類에 대해 알아 보았으나 현재 이러한 五運六氣體質論 및 處方에 대해 反對의 意見이 많은 것은 醫學의 形態가 아닌 四柱나 針술의 特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生年月日을 가지고 體質을 分類하고 “어떠어떠한 病이 생길 것이다.” 라고 豫測하는 것이 五運六氣는 分明 韓醫學의 基礎理論이긴 하지만 出生, 入胎 等에 따르는 分類와 그에 이어지는 處方은 韓醫學의 辨證學說과도 모순된다.

또한 각 年別로 나오는 10개의 處方의 앞에는

病을 미리 豫測해 놓은 글귀가 있는데 이는 詳細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다가, 그저 그 藥만 쓰면 모든 病이 나올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甲子年 初運初氣土水에는 “胃經濕痰流行, 四肢骨節痛, 上焦虛熱, 下焦冷也³⁵⁾”라고 나오면서 加味苓附湯³⁶⁾이 소개되어 있다.

이처럼 不問診斷의 型式을 띠고 있기 때문에 韓醫學의 知識이 없어도 處方의 運用이 容易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陰陽五行通變寶鑑』³⁷⁾에서는 五運六氣의 虛點과 長點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五運六氣에 의한 人體의 治病은 이면의 先天의인 體質을 파악하여 藏府의 寒熱虛實을 조정하여 根治를 하는데 있다. 長點으로는 先天의인 고유한 體質을 알 수 있기 때문에 運氣에 의한, 各 個人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豫防醫學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또한 몸이 약해질 때 本人의 根本病理 등을 파악하여 氣의 太過와 不及 및 血의 寒熱溫涼을 조절하여, 人間의 健康과 疾病을 治療할 수 있는 우수한 治法이다. 虛點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각 개인의 出生 年月日時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할 때는 같은 체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남녀노소차이가 시간과 공간적인 것과는 무관하다.

둘째, 현재 각 個人이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는지나하는 생활환경에 따른 직업병 등은 별개의 문제이다.

셋째, 血統上 전하는 유전성 질환이나 혈액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넷째, 傷寒病이나 雜病은 별도로 치료해야 한다. 그러므로 질병이 발병하면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血統상 어떤 유전성 질환이 있으며 현재 傷寒病을 앓고 있는지 또는 다른 雜病을 앓고 있는지 등 전체를 파악하여 자연의 기후적인 변화와 함께 질환의 치병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닌데 『五運六氣學』의 應用편에는 같은 藏腑라 하더라도 症狀이 있고 없음에 따라 處方이 달라지며³⁸⁾ 아래의 표 8에서 보듯이 『五運六氣漢醫學寶鑑』의 補瀉在味隨時換氣藥의 藏腑別 寒熱溫涼藥材에 대한 分類가 표 9에 收錄되어 있다.

또한 『運氣演繹方藥篇』³⁹⁾에도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어서 處方을 고정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藏府의 虛實에 따라 加減함을 알 수 있다.

① 火臟火腑

心臟

補心壯元 - 五味子

補心次元 - 酸棗仁, 柏子仁, 遠志, 丹參, 龍眼肉, 麥門冬, 當歸, 白芍藥

瀉心壯元 - 石菖蒲, 黃連, 木通, 靈砂, 犀角

瀉心次元 - 梔子, 連翹, 通草, 車前子, 竹茹, 燈心, 蓮肉

小腸腑

補小腸壯元 - 生地黃

瀉小腸壯元 - 木通

瀉小腸次元 - 薏苡仁, 赤芍藥, 燈草, 瞿麥, 海金沙, 川楝子

② 土腸土腑

脾臟

補脾壯元 - 白朮, 黃精

補脾次元 - 山藥, 白扁豆, 薏苡仁, 大棗, 甘草

瀉脾壯元 - 枳實, 蘿菴子

瀉脾次元 - 神麩, 麥芽, 山茱萸, 枳殼, 厚朴, 大腹皮, 使君子, 白芷, 鷄內金, 陳皮

35) 崔晟植, 五運六氣處方學, 東洋서적, 1997, p. 54.

36) 崔晟植, 五運六氣處方學, 東洋서적, 1997, p. 254. 白茯苓 2.5錢, 當歸, 川芎, 卞香附, 白朮, 陳皮 各 1錢, 桔梗 2錢, 枳殼, 附子炮, 肉桂 各 1.5錢, 五味子 7分

37) 朴琪聖 外 1人, 陰陽五行通變寶鑑, 서울, 南山堂, 1993.

38) 五運六氣漢醫學寶鑑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39) 老佛, 運氣演繹方藥篇, 癸丑文化社, 1995, p. 51- 56.

40)

臟腑	溫	涼
肝	木香, 肉桂, 半夏, 肉豆蔻, 陳皮, 丘郎, 蕪撥	鼈甲, 黃連, 黃芩, 草龍膽, 草決明, 柴胡, 羚羊角
心	當歸, 芍藥, 吳茱萸, 肉桂, 蒼朮, 石菖蒲, 白朮	犀角, 生地黄, 牛黃, 竹葉, 麥門冬, 黃連, 連翹
脾	香附子, 關系, 木香, 肉豆蔻, 益智仁	黃芩, 苦參, 白芍藥, 升麻, 連翹, 梔子, 黃連, 石膏
肺	陳皮, 半夏, 生薑, 款冬花, 白豆蔻, 杏仁, 蘇子, 川椒	知母, 貝母, 瓜蒌仁, 桔梗, 天門冬, 片芩, 梔子, 石膏
腎	沈香, 兔絲子, 附子, 肉桂, 破故紙, 柏子仁, 烏梅, 巴戟	知母, 黃柏, 牡丹皮, 玄參, 生地黄
膽	橘皮, 半夏, 生薑, 川芎, 桂皮	黃芩, 黃連, 竹茹, 柴胡, 草龍膽
小腸	巴戟, 茴香, 益智仁, 烏藥	茅根, 通草, 天花粉, 黃芩, 滑石, 車前子
胃	丁香, 白豆蔻, 草豆蔻, 薑, 厚朴, 益智仁, 吳茱萸	石膏, 連翹, 滑石, 升麻, 葛根, 天花粉, 梔子, 黃芩
大腸	人參, 官桂, 半夏, 木香, 胡椒, 吳茱萸	黃芩, 天花粉, 槐花, 梔子, 連翹, 石膏
膀胱	茴香, 烏藥, 肉桂, 沈香, 吳茱萸	生地黄, 防己, 黃柏, 知母, 滑石, 甘草
命門	附子, 破故紙, 當歸, 熟地黄, 兔絲子, 吳茱萸, 茴香	知母, 草龍膽, 木通, 車前子, 地骨皮, 黃柏, 梔子
三焦	附子, 破故紙, 當歸, 熟地黄, 兔絲子, 吳茱萸, 茴香	知母, 草龍膽, 木通, 車前子, 地骨皮, 黃柏, 梔子

ㄷ 8. 補瀉在味隨時換氣藥 - 溫涼

41)

臟腑	補	瀉
肝	木瓜, 阿膠, 川芎, 山茱萸, 酸棗仁, 五加皮	青皮, 芍藥, 柴胡, 前胡, 犀角, 陳皮, 草龍膽
心	遠志, 白茯苓, 天門冬, 兔絲子, 人參, 金箔銀箔, 鹽炒	黃連, 苦參, 貝母, 前胡, 鬱金
脾	人參, 黃芪, 白朮, 茯苓, 陳皮, 半夏, 乾薑, 麥芽, 山藥	巴豆, 三稜, 枳實, 赤芍藥, 大黃, 青皮, 神麩, 山梔子
肺	人參, 黃芪, 阿膠, 五味子, 沙參, 山藥, 鹿角膠	葶藶, 桑白皮, 防風, 杏仁, 麻黃, 枳殼, 紫蘇葉
腎	熟地黄, 枸杞子, 鹿茸, 龜板, 五味子, 肉蓯蓉, 牛膝, 杜沖	澤瀉, 茯苓, 豬苓, 琥珀, 木通
膽	當歸, 山梔子, 酸棗仁, 五味子	青皮, 柴胡, 黃連, 木通, 芍藥
小腸	牡蠣, 石菖蒲, 澤瀉	葱白, 蘇子, 續隨子, 大黃
胃	白朮, 山藥, 連實, 白扁豆, 人參, 黃芪, 縮砂	巴豆, 大黃, 枳實, 芒硝, 厚朴, 牽牛子
大腸	罌粟殼, 五倍子, 杜沖, 肉豆蔻, 木香, 訶子	芒硝, 大黃, 續隨子, 桃仁, 枳殼, 丘郎, 葱白, 牽牛子
膀胱	益智仁, 石菖蒲, 續斷	車前子, 瞿麥, 滑石, 芒硝, 澤瀉, 豬苓, 木通
命門	人參, 黃芪, 乾薑, 甘草, 白朮, 桂枝, 益智仁	黃柏, 梔子, 豬苓, 澤瀉, 茯苓, 大黃, 丘郎
三焦	人參, 黃芪, 乾薑, 甘草, 白朮, 桂皮, 益智仁	黃柏, 梔子, 豬苓, 茯苓, 大黃, 丘郎

ㄷ 9. 補瀉在味隨時換氣藥-補瀉

40) 金基郁. 運氣體質에 觀한 研究. 大韓原典醫學史學會誌. 1997. 10(1). p. 606.

41) 金基郁. 運氣體質에 觀한 研究. 大韓原典醫學史學會誌. 1997. 10(1). p. 606.

溫脾壯元 - 附子, 乾薑, 巴豆, 肉豆蔻, 草果, 蒼朮, 胡椒
 溫脾次元 - 木香, 炒乾薑, 烏藥, 益智仁, 藿香, 砂仁, 白豆蔻, 川椒
 涼脾壯元 - 大黃, 黃芩, 瓜蒌仁
 涼脾次元 - 黃柏, 梔子, 知母, 金銀花, 燕麥

胃腑

補胃壯元 - 白朮, 黃芪, 大棗
 補胃次元 - 山藥, 白扁豆, 炙甘草, 龍眼肉, 紅大棗
 瀉胃壯元 - 石菖蒲, 枳實, 雷丸, 白芥子, 蘿菈子, 神麩
 瀉胃次元 - 蘇葉枝, 枳殼, 蔓荊子, 麥芽
 溫胃壯元 - 乾薑, 良薑, 益智仁, 肉豆蔻, 丁香, 木香, 胡椒, 辛夷花
 溫胃次元 - 藿香, 砂仁, 白豆蔻, 半夏, 烏藥, 炮乾薑, 厚朴, 川椒

③ 金臟金腑

肺臟

補肺壯元 - 黃芪, 人蔘
 補肺次元 - 丹蔘, 沙蔘, 百合, 阿膠, 山藥, 茄子, 麥門冬, 水砂糖
 瀉肺壯元 - 葶藶子, 麻黃, 白芥子, 桔梗, 升麻, 南星
 瀉肺次元 - 蘇子, 牛蒡子, 杏仁, 前胡, 紫菀, 桑白皮, 白僵蠶, 竹茹, 貝母
 涼肺壯元 - 石膏, 黃芩, 竹茹, 馬兜鈴, 山慈姑
 涼肺次元 - 玄蔘, 枸杞子, 天花粉, 地骨皮, 知母, 麥門冬, 薄荷
 溫肺壯元 - 麻黃, 南星, 五味子
 溫肺次元 - 蘇葉, 款冬花, 半夏製, 生薑

大腸腑

補大腸壯元 - 淫羊藿, 罌粟殼
 補大腸次元 - 訶子肉, 百合
 瀉大腸壯元 - 大黃, 桃仁, 雷丸, 麻仁, 升麻, 芝草
 瀉大腸次元 - 秦艽, 旋覆花, 郁李仁, 杏仁, 大腹

皮, 梨汁

溫大腸壯元 - 胡椒, 破故紙, 枸杞子
 溫大腸次元 - 當歸
 涼大腸壯元 - 黃芩, 黃柏
 涼大腸次元 - 槐花, 地榆, 知母, 連翹

④ 水臟水腑

腎臟

補腎壯元 - 熟地黃, 枸杞子, 淫羊藿, 五味子
 補腎次元 - 生地黃, 巴戟, 何首烏, 杜仲, 女貞實, 龜板, 海蔘
 瀉腎壯元 - 豬苓
 瀉腎次元 - 澤瀉, 知母, 赤茯苓, 薏苡仁
 溫腎壯元 - 破故紙, 鹿角, 鹿角膠
 溫腎次元 - 山茱萸, 兔絲子, 茴香, 艾葉
 涼腎壯元 - 朴梢, 玄明粉, 苦參
 涼腎次元 - 生地黃, 牡丹皮, 知母, 滑石

膀胱腑

補膀胱壯次元 - 補腎의 壯元, 次元과 同一
 瀉膀胱壯元 - 羌活, 麻黃, 防己, 木通, 豬苓
 瀉膀胱次元 - 獨活, 防風, 蒲黃, 川棟子, 前胡, 藁本, 澤瀉, 葱白
 溫膀胱壯元 - 吳茱萸
 溫膀胱次元 - 烏藥, 茴香
 涼膀胱壯元 - 甘遂, 草龍膽
 涼膀胱次元 - 車前子, 黃柏, 海金沙

⑤ 木臟木腑

肝臟

補肝壯元 - 枸杞子, 五味子, 烏梅
 補肝次元 - 山茱萸, 何首烏, 兔絲子, 當歸, 白芍藥, 白茯苓, 鼈甲, 龍骨, 木瓜
 瀉肝壯元 - 鬱金, 桃仁, 青皮, 蓬朮, 沈香
 瀉肝次元 - 香附子, 木香, 玄胡索, 柴胡, 梔子, 川芎, 川棟子, 赤芍藥, 瓜蒌仁
 溫肝壯元 - 肉桂, 桂枝, 吳茱萸, 細辛, 胡椒, 骨碎補
 溫肝次元 - 兔絲子, 艾葉, 茱萸, 茴香

凉肝壯元 - 草龍膽, 胡黃蓮
凉肝次元 - 羚羊角, 夏枯草, 石決明, 青蒿, 甘菊

膽腑

補膽壯元 - 烏梅
補膽次元 - 酸棗仁
瀉膽壯元 - 桔梗, 青皮
瀉膽次元 - 柴胡, 香附子, 秦艽, 川芎
溫膽壯元 - 肉桂, 細辛
溫膽次元 - 山茱萸
凉膽壯元 - 草龍膽
凉膽次元 - 青蒿, 槐花

⑥ 三焦腑

補三焦壯元 - 淫羊藿
瀉三焦壯元 - 青皮, 木香
瀉三焦次元 - 柴胡, 香附子
溫三焦壯元 - 烏藥, 白豆蔻, 胡挑
溫三焦次元 - 梔子, 麥門冬, 黃柏, 地骨皮, 青蒿, 連翹⁴²⁾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運氣處方의 운용은 고정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運氣演繹方藥篇』에서의 臟腑의 機能的인 側面으로 나누어 本草를 分類함에 있어 ‘壯元’과 ‘次元’으로 藥效의 強弱을 평가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五運六氣의 醫學的 適用은 그 意義나 價値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실제 醫學적 측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公式化된 이용방법에 있다. 歷代醫家들도 運氣의 醫學的 適用에 대해 반대한 王履나 虞搏 등도 사실상 運氣學에 대한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機械的인 이용에 반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中途的인 입장을 견지했던 皇承景, 馮兆張, 徐大椿 등도 運氣理論의 기계적인 적용을 반대한 것이었으며, 沈括, 汪機 등의 醫家は 運氣理論의 醫學적 적용을 긍정하면서도 기계적인 운용방법은 반대하였던 것이다.

42) 溫三焦次元的 藥物은 대개 寒性의 藥性을 가지고 있어서 溫三焦次元이란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運氣學說이 醫學적 측면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처럼 부분처럼 도식화된 모델을 통해 거의 무조건적인 운용은 옳지 못하며, 四診과 함께 診斷과 辨證을 하여 치료에 이용해야 하며, 특히나 處方의 運用에 있어서 加減을 통한 정확한 方劑構成까지 이어져야 한다.

III. 結 論

運氣學의 起源과 贊反論, 運氣醫學의 運用方法 및 그 問題點과 解決方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우리나라에서 生年月日을 基準으로 運用되는 運氣醫學은 그 原型을 『五運六氣漢醫學寶鑑』에서 찾을 수 있으나, 자칫하면 機械的인 運用을 초래하여 漢的學說 辨證體系를 무시할 수 있다.
2. 生年月日을 基準으로 하는 五運六氣體質은 ‘出生’과 ‘入胎’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出生日’이나 ‘入胎日’을 基準으로 하는 臟腑體質은 出生日과 入胎日의 ‘客運’ ‘客氣’에 의해 臟腑가 決定된다.
3. 入胎日의 推算法에 있어서 卯酉日의 出生者는 306日의 入胎日로 적용하기에는 問題가 있고, 地支의 相害와 相破를 건주어보아 246日과 306日을 判가름하는 基準을 發見했으며, 이를 基準으로 하면 246일 入胎日도 인정함이 옳다.
4. 四象의 名稱이나 三陰三陽으로 이름붙인 體質은 處方과 直接的으로 이어지는 資料는 發見하지 못하였고, 出生月의 客氣에 따라 名稱을 붙인 것이라고 推測된다.
5. 運氣醫學이 機械的 適用만을 고집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實際로는 辨證과 加減을 통한 올바른 處方을 구성토록 한 本草의 加減에 대한 分類

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機械的인 運用이 아닌 四診合參과 더불어 治療方面에서 이용하는 것이 運氣學說을 醫學的으로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이다.

運氣體質에 의한 辨證과 四診을 통한 辨證을 取舍選擇할 수 있는 基準이 분명하지 않으며, 臟腑虛實에 따른 本草의 分類 역시 藥性和 때로는 일치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러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문제점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參考文獻

<논문>

1. 李東鎬, 朴贊國. 劉河間의 運氣論과 그 運用에 關한 研究. 서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0. 13(2).
2. 尹暢烈. 運氣學說의 起源에 對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9. 12(1).
3. 김장규, 김선호, 윤창열. 運氣學說의 贊反論爭에 對한 歷史的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8. 11(1).
4. 金基郁. 運氣體質에 關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6. 10(1).
5. 김준태, 윤창열. 尹草窓의 生涯와 草窓訣 書誌學的 意義에 對한 小考. 大田. 大田大學校韓醫學研究所. 1992. 1(1).

<단행본>

1. 박영배, 김태희 編著. 運氣醫學. 서울. 成輔社. 2005.
2. 姜鎭春. 運氣體質學輯要. 서울. 道林出版社. 2005.
3. 揚力. 中醫運氣學. 中國. 法仁文化社. 2000.
4. 정규연. 오운육기핸드북. 서울. 에드텍. 2000.
5. 김상연, 컴퓨터만세력, 大邱, 甲乙堂, 2000.
6. 崔晟植 編. 五運六氣處方學. 美國. 東양서적.

- 1997.
7. 李俊雨. 命理精說. 서울. 明文堂. 1996.
8. 老佛 著. 運氣演繹方藥篇. 臺灣. 癸丑文化社. 1995.
9. 王琦. 運氣學說的研究與考察. 北京. 智識出版社. 1989.
10. 金于齊, 金莊善. 仙人秘傳五運六氣治病藥法. 서울. 明文堂. 1981.
11. 尹東里. 草窓訣. 漢城出版社. 1980.
12. 白南喆. 五運六氣學. 한림의학사. 1979.
13. 天安漢醫師會. 五運六氣漢醫學寶鑑. 서울. 右文堂印刷社. 1967.
14. 五運六氣處方集 筆寫本

<전자매체>

1. 四柱大典. 부산. 四柱大典. 2000.
2. 四柱博士5.0. 서울. 선도정보통신주식회사. 1997.
3. 四柱百科4. 서울. 코리아컨텐츠네트워크. 2002.
4. 韓醫博士. 서울. 메디넷코리아. 2001.
5. 인터넷 역학카페 역학동 자료실
<http://cafe.daum.net/2040>.